

싫증이 안나는 自然讚美의 노래

국민학교때부터

自然의 기쁨을 가르치자

吳 判 龍

自然을 사랑한 우리祖上들은 많은 漢詩와 노래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특히 1920年 이후 開化期의 노래는 民族의 悲哀를 自然에 비유한 哀愁에 젖은 노래가 많았다. 올해 海軍歌를 作曲했으며 '56년 꽃중의 꽃을 作詞作曲했고 '64년에 빨간마프라등을 作曲했던 作曲歌이며 음악평론가인 黃文平씨는 『옛날에는 사랑이나 感情을 꽃과 山水에 비유했다. 예를 들면 저달을 보면... 하는식으로. ...元來 우리는 自然속에 同化되었으며 自然속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日帝下에서도 獨立과 民族精神을 고취한 노래가 많았지만 거의가 自然에 비유한 가사였다고 기억된다. 특히 大衆가요로 널리 불리고 있는 大韓八景(原名·조선팔경)은 비록 가사만은 北韓은 고쳐부르지만 南北이 똑같은 曲으로 愛唱되고 있는 것은 이 노래뿐이라고 한다.

이 노래는 50년전인 1935년경에 邢奭基씨(77세가량·病患中)가 作曲했는데 作詞者 王平씨는 해방전에 作故했다한다. 우리 國土의 아름다움을 讚美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피를 끓게한 民族詩人과 作曲歌는 枚擧하기 어렵다. 고향 馬山의 바다를 찬미하여 「가고파」를 비롯 수많은 名歌詞를 지은 鷺山 李殷相, 지난 11月初에 86세

로 作故한 朴泰俊씨의 作詞를 비롯 金億, 芭人 金東煥, 尹石重, 洪蘭坡先生 등 많은 분들이 남긴 훌륭한 歌詞를 모아 後世에 남겨야 할 것이다.

健全한 우리의 歌曲이 사라지면서 日帝中葉부터 日本의 造形文化가 들어오고 流行歌가 판을 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日本 大衆文化에 從屬되었다. 從屬文化의 副作用은 深刻하여 그것이 우리의 뿌리인양 錯覺을 하게 이르렀으니 文化的 支配의 가공함을 實感하는 것이다. 60年代에 와서는 소위 靑바지文化, 팝송文化에 同化되고 한때는 前衛藝術이라 自稱하는 마리카나 文化까지 끼어들기도 했다. 이들은 美國음악이 傳統음악으로 착각하고 있다 한다.

最近에 와서 국민감정과 표현에 공감대형성 역할을 하는 大衆歌謠에 自然을 主題로한 歌詞가 부쩍 늘어가고 있음은 정서교육이나 自然愛護를 위해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얼마전 詩人 趙炳華선생이 TV에서 말하기를 作曲家들이 많은 詩集을 읽고 좋은 詩를 發掘해서 自己의 曲을 붙이는 것이 대중가요 資質 向上을 위해 바람직하다 했는데 껍 共感이 간다.

최근 아름다운 노랫말 普及을 위한 모임인 「노랫말研究會」서는 가요발전을 위한 작업의 하

나로 가사가 잘못된 대표적인 노랫말 20편을 골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미가 연결되지 않은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웃음거리가 된다. 「아아... 뚝뚝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란 「작사랑」의 1절만해도 뚝뚝새는 우리나라의 봄~초여름 사이에 우는데 가을에 운다 했으니 계절감각에도 큰 착각인데 발표전에 좀더 냉철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農博이며 日本造景學會 會員인 針ヶ谷 鍾吉氏가 調査한 『小學唱歌에 그려진 自然風景』이란 글 內容을 紹介하여 作詞作曲하는 分들의 參考가 되었으면 한다. 한마디로 日本 文部省은 明治時代(1868~1912年)부터 小學校唱歌集教材에 有名詩人의 노래를 담아왔다. 1882년 小學唱歌集初編에 실린 「봄의 속삭임」은 慈鎮和尚의 作詞인데 그는 生存時 慈月이라는 가마꾸라(鎌倉)初期의 歌人이다. 이노래는 4季

節의 不特定한 自然을 노래한것. 四季의 달 1885

小學校歌集 3) 四季의 비 (1915年 尋常小學校 6學年用) 시골의 四季 (1911年 7月 尋常小學校讀本唱歌全一冊속·文部省小學 4年唱歌教材) 봄의 시냇물 (1912年 12月 小學 4年用) 朧月夜 (1915年 6月 小學 6年用) 茶摘 (1912年 3月 小學 3年用) 모심기·여름은 오지않아 (1897年 5月 小學唱歌) 紅葉 (1911年 文部省小學창가 2) 雁 (1912年 文部省小學창가 3) 겨울의 景致 (1913年 5月 文部省小學창가 5) 겨울의 밤 (1912年 文部省小學창가 3) 겨울의 노래 (1845年 8月 독일曲에 가사붙임) 故鄉의 하늘 (1889年) 故鄉 (1915年) 바다 (1913年) 旅愁 (1907年) 汽車 (1912年 3月) 아름다운 天然 (1901年 日本最初の 왈츠曲인데 作曲家는 當時佐世保 海軍軍樂隊長인 内中總積) 以上모두가 요즘도 부르는 國民學校唱歌教材인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거의가 지금 50代以上の 사람들이 日帝時代 小學 또는 中學에서 배운것들. 70年이 지난 지금도 愛唱되고 있는 點과 歌詞가 한결같이 然을 찬미한 名詩임에 注目해야할 일이다.

「한국歌曲大全集」出盤

카세트40개, 國內外 愛唱 4百曲

한국歌曲 4백여곡을 집대성한 「韓國歌曲 大全集」이 40개짜리 카세트 전집으로 서울음반에서 出盤돼 음악동호인들이 관심.

한국가곡, 세계의 애창곡, 입시생을 위한 입시가곡, 합창곡, 성가곡반주음악, 관현악곡등으로 구성된 이 가곡대전집은 국내의 대표적작곡가 1백여명의 작품과 세계애창곡이 실렸고 성악가 1백40명이 참여한것. 「오케스트라」반주는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멤버들이 맡았으며 大邱시립교향악단도 가곡연주에 가담했다.

음대지방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70곡의 예술가곡은 정확한 가사전달과 피아노반주에 중점을 두고 엮어졌고 반주음악과 관현악곡으로 편곡된 한국가곡들은 일반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連休를 음악과 함께...

KBS 1FM, 연휴집중방송도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해 KBS에서는 新正연휴동안 귀중한 녹음자료가 될 名曲 명연주를 내보낼 예정이고 음악기기 메이커서는 음악회장에서 생생한 연주를 듣는듯한 느낌을 주는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KBS 1FM에서는 새해 1일~4일까지 매일 낮12시부터 3시간동안 클래식명곡 33곡을 집중방송. 이는 지난 84년부터 3천명의 FM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명곡의 선호도를 조사, 선정된 교향곡, 관현악곡, 현악 및 피아노협주곡과 실내악 국내외의 성악곡등이 소개됐다. 「카를로스 클라이바」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첼리스트 「파블르 카살스」 등이 연주. 또한 아남전기 三星전자등에서는 최근 소리의 혁명이라 불리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개발했다고 선전중.